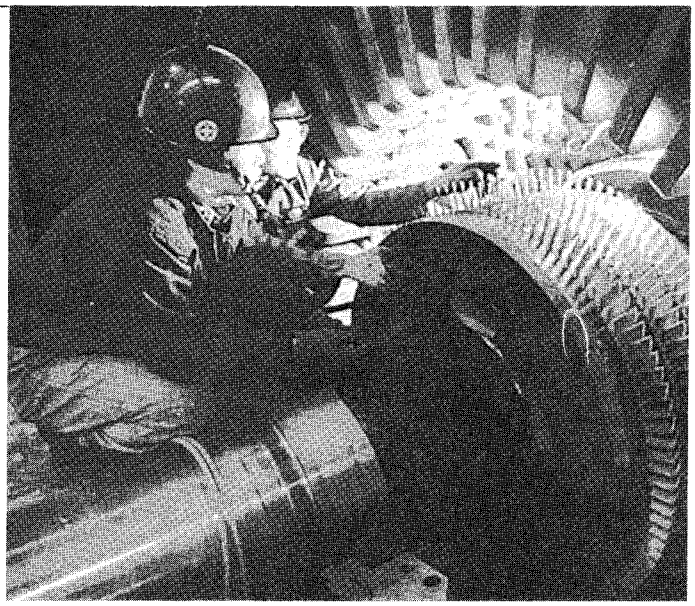
韓電機工株式会社

KPS



〈발전설비의 무고장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발전소 발전설비 정비전담

현대문명의 근원이자 우리 생활의 밑거름인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설립된 한전기공주식회사는 전국 46개 발전소의 발전설비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발전설비 정비전문회사이다.

지난 4월 1일 회사 창립 10주년을 기해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나선 한전기공은 '국민생활과 산업발전의 동반자'라는 기업이념으로 국가산업과 사회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공급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제일의 정비기술 전문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과감한 경영혁신운동을 추진중에 있다.

해외시장 개척 등 '역UR적' 자세로 대응

한전기공의 역사는 '74년 주식회사 한아공영의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7년 한국전력(주)이 한아공영을 인수해 한전보수공단이 설립되었고, '81년 한국중공업에 흡수·합병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어 '84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전액출자로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가 설립됐다.

'92년 이후 기업이미지 쇄신과 사업영역 확대로 회사명을 한전기공으로 바꾸어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한전기공은 주로 발전설비의 무고장 운전과 이용률 향상을 위한 경상·계획예방정비와 함께 성능개선 복구공사, 시운전 정비, 핵연료 재장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력설비의 결함을 과학적으로 측정·해결하는 비파괴 검사와 공업세정, 그리고 송변전설비의 유지정비로 보다 질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일반산업설비의 정비업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등 그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한전기공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라크,사우디,중국,브라질,필리핀 등의 발전소에 고도의 정비기술을 수출하여 대내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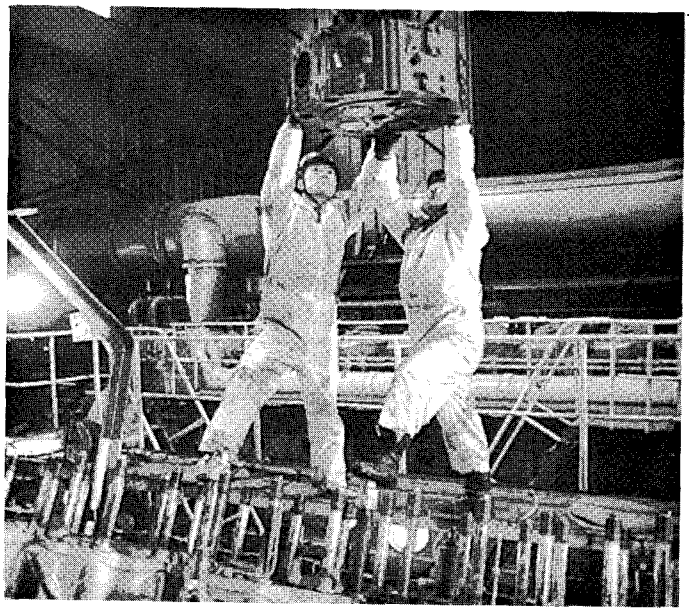
이와같은 한전기공의 '역UR적' 자세는 기술패권주의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의연히 맞서나가 장차 우리 기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정비기술연구소 발족

기업 체질강화 및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준독립 채산제는 기술우위의 위상확립과 공신력 제고의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사업소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준독립채산제는 각 사업소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효율적인 경영과 정예화된 조직체계를 지향하는 일종의 소사장(小社長) 제도로, 한전기공의 변혁의지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한편 정비기술의 개선으로 기술자립체제를 정립하겠다는 회사 설립목표 아래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기술·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 축적하여 기술고도화를 이룩하고 있다〉

국제적인 정비기술전문회사로 도약

소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자기계발을 돕고 있으며, 전문원제도와 사내자격제도를 시행한 결과 전직원의 81%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93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맵스(MAPS)는 정비의 과학화에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MAPS란 현장의 정비기록에서부터 직원 개개인의 노하우까지 관리되는 '발전소 정비지원시스템'으로, 한전기공의 풍부한 정비경험과 최첨단 컴퓨터기술이 어우러진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한전기공의 기술개발 노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 지난 5월10일 문을 연 정비기술연구소를 들 수 있다.

정비기술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기술연구소는 엔지니어링 13개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특수사업소로 총체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정비기술의 메카라 할 수 있다.

'인간중시'로 사람을 키우는 회사

'인간중시'와 '현장중심'이라는 최고경영자의 경영 의지대로 한전기공은 인재양성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회사의 중심이 되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는 청년중역회의의 운영 등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직원 개개인의 창의적인 제안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해외교육을 해마다 증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신입사원 선발시 인턴사원제,교수추천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력경로 설정을 추진중에 있다.

능력주의 인사정책을 위해 새로 도입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으로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직원 모두의 의식개혁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사람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인사정책은 「기술선진화의 지름길은 인재양성에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전기공은 경영이념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해 추진해온 CI작업은 새로 거듭나려는 한전기공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착실히 대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씨앗-2000. See You At The Top In Year 2000. 이는 한전기공의 옹골찬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초일류기업의 발판을 다지려는 한전기공인들의 노력을 가시화한 것으로, 그들의 의지대로라면 세계로 도약하는 정비기술 전문회사로의 꿈은 분명 머지않아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